

진입로 경매 넘어간 대광여고 '통행료 날벼락'

설립자 이홍하 소유부지 낙찰업체 3억원대 토지인도소송 "진입로 이용에 매달 685만원 내라" ... 학교·교육청 무대책

광주 대광여고가 공매로 넘어간 학생들의 통행료 이용료로 매월 수백만원을 내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설립자인 이홍하(79)씨 소유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빚어진 일로,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대광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흥복학원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 명의의 통행료를 확보하도록' 지도·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한회사인 A종합개발은 최근 광주지법에 흥복학원을 상대로 3억1900만원 규모의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다. A종합개발이 지난해 11월 2일 공매를 거쳐 낙찰받은 부지(100㎡)와 학교 앞 통행로(1000㎡)를 대광여고측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돌려달라는 게 소송 취지다. 해당 업체측은 부지 내 들어선 학교 건물에 대한 철거와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료도 청구했다.

특히 통행로의 경우 감정가(45억원)와 점유면적 등을 감안, 매월 사용료로 687만 5000원을 책정하고 낙찰받은 이후부터 해당 부지를 돌려줄 때까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업체측 주장이다.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난 통행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학교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통행로 부지가 학교를 오가는 데 필수적 공간인 만큼 시급한 해결이 절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해당 부지를 사들일 예산도 마련하기 벅거운데다, 임시시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임시시사의 역할과 권한 밖이

라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들어 기본적인 법인 소유 통행로조차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교육당국의 미흡한 지도·감독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학교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대광여고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달밤에 광주전 전통등 나들이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5월3일)을 보름 앞 둔 17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일대 광주천에서 '전통 등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8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안관찰법 위반 기소 강용주씨 불복 투쟁

3개월마다 신고 의무 어겨 "전두환·노태우는 면제 거주 이전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용주(55·의사)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강하게 반발, 불복 투쟁에 나섰다.

군사반란 및 내란으로 무기징역 등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안관찰 대상에서 면제됐는데 왜 자신은 대상이냐는 항변이다.

강 전 센터장은 17일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고, 술을 마셨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석달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이 보안관찰법"이라며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8일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보안관찰법 위반 재판이다.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는 각각 벌금 5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보안관찰법은 유신시대 사회안전법 후신으로 1989년 6월 시행됐다. 군사반란·내란·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가 되면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과 여행지, 통신·회합한 다른 대상자의 인적사항·일시·장소·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보안관찰법에 대해 강 전 센터장은 프라이버시, 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는 특히 "12·12 군사 반란과 5·18 내란으로 선량한 시민을 학

살한 전두환·노태우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에서 면제됐다"며 "(자신이)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로 왜곡하는 등 재벌 우려가 높다. 전두환이 보안관찰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 전 센터장은 또 "2002년 보안관찰처분 행정소송때 변호인으로 강금실 변호사가 참여했는데, 법무부장관이 되자 보안관찰처분 면제가 아닌 갱신처분 했다"면서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게 적폐"라고 지적했다.

강 전 센터장은 1985년 전남대 의대 재학 중 구미유학생감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9년 2월 특별사면돼 출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유해화학물 취급사 실태조사 507곳 중 71곳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7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변경허가 미이행 또는 무허가 영업 등 법령을 위반한 71곳에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에서는 사업장 6곳이 적발됐고 이 중 업체 3곳은 고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화에 따른 균열 등 안전상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2곳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바닥 균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외 95개 사업장에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7 | 해질 19:07 | 달뜨기 00:20 | 달지기 10:46

비 머금은 새벽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었다.

구분	날씨	기온
광주	구름 많음	10/18
전남	구름 많음	11/22
전북	구름 많음	7/20
충청	구름 많음	10/18
경상	구름 많음	11/22
강원	구름 많음	12/20
제주	구름 많음	8/19
서울	구름 많음	8/20
대전	구름 많음	9/19
대구	구름 많음	10/19
부산	구름 많음	11/21
인천	구름 많음	8/23
울산	구름 많음	9/19
경남	구름 많음	8/21
충남	구름 많음	8/22
충북	구름 많음	8/19
강원	구름 많음	8/17
제주	구름 많음	8/20

구분	오전	오후
서해	남~남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	남~남서 1.5~2.5	서~북서 1.5~3.0
남부	남~남서 1.0~2.0	서~북서 1.0~2.0
남해	남~남서 2.0~3.0	서~북서 2.0~3.0
서부	남~남서 2.0~3.0	서~북서 2.0~3.0

구분	간조	만조
목포	11:34	06:17
	23:32	18:19
여수	07:09	00:50
	18:59	13:00

구분	날씨	기온
19(수)	구름 많음	6/18
20(목)	구름 많음	11/19
21(금)	구름 많음	9/20
22(토)	구름 많음	8/21
23(일)	구름 많음	10/21
24(월)	구름 많음	9/22
25(화)	구름 많음	10/20

편의점 알바생 '乙의 눈물'

캐시 충전 사기 피해액 고스란히 떠안아

목포시 용광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 김모(19)군은 최근 상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2월18일 새벽 1시께 한 30대 남성이 편의점 입구에 차를 대고 들어왔다. 이 남성은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1000만원이 넘는 캐시를 충전한 거래내역과 80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김군에게 보여줬다.

30대 남성은 "나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은행이 문을 열면 돈을 찾아 주겠다"며 김군을 안심시킨 뒤 100만원어치의 캐시충전을 요구했다. 김군은 믿기에 훔친 듯 30대 남성의 말을 믿고 충전을 해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였다. 결국, 김군은 월급 60만원을 모두 피해 보상금으로 편의점 업주에게 내줘야 했다. 부족한 40만원은 김군의 부모가 대신 풀어주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김군은 6개월 동안 일해오던 편의점을 그만두었다.

이런 수법으로 30대 남성은 목포와 신안 일대에서 8명의 알바생에게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총 700여만원 가량을 사기 쳤다. 이렇게 피해를 본 알바생은 대부분 고등학생에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로, 피해액을 자신의 월급에 차감하거나 부족한 경우 김군처럼 부모 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와 같이 편의점 범죄의 책임 소재에 대해 몇몇 업주들은 피해금액을 알바생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이런 경우의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만큼 손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 등을 통해 업주와 알바생 간 책임 비율을 가려야 한다.

이런 업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손해 발생원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평한 분담이라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이어 "업주가 고용한 알바생이므로 업주도 일부 책임이 있으며, 근무를 하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알바생이 전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업주가 일반적으로 알바생의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임금 체납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광주시청 소년노동인권센터나 노동청에 임금 지불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남원시의 봄 축제에 몰입한다

남원시 춘향제 (5월)

철쭉제 (4~5월)

지리산둘레길 (3~5월)

요천번 벚꽃 (4월)

요천자전거길 (5월)

여행을 판다를 나와의 만남